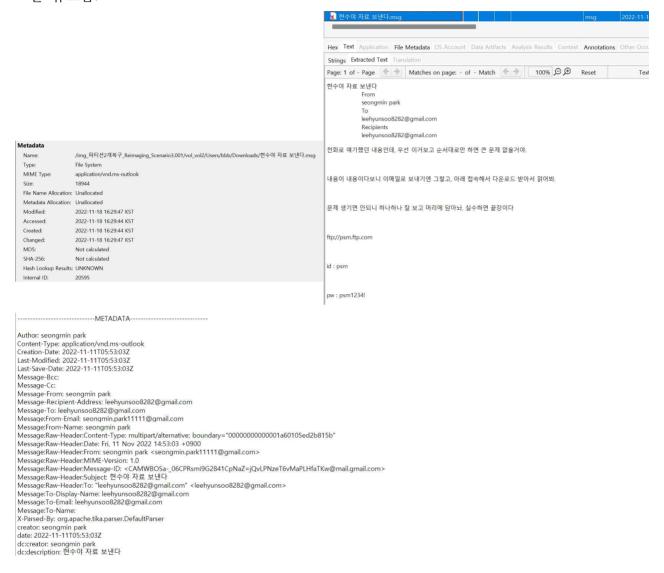
문제 13.

- 13. 이현수가 김재기를 살해하고 받기로 한 댓가는 무엇인지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고,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 박성민으로 추정되는 수신자에게 김재기 회장의 빚 변제 독촉 카톡을 송신한 카톡 캡처 이미지 파일과 해당 이미지 파일에 스테가노그래피로 은닉한 이현수와의 카톡 캡처 이미지 파일을 복구하였다.
- 스태가노그래피로 은닉한 이현수와의 카톡캡처 내용은 대략 이현수의 7천만원 빚을 없던걸로 하고, 추가로 1억원을 약속한 것과 이후 이메일로 송신하여 박성민으로 추정되는 송신자가 오늘 7시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며 이현수의 행동을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범행이 이 때 펼쳐진 것으로 보임.



Metadata o3.001/vol_vol2/Users/bbb/Documents/카카오록 받은 파일 /img_파티션2개복구_Reimaging_Scenario3.0 /KakaoTalk_Snapshot_20220907_161034.jpg File System image/jpeg 649885 File Name Allocation 2022-09-05 17:43:16 KST Modified: Accessed: 2022-11-18 14:51:51 KST Created: Changed: 2022-11-18 14:51:51 KST 2022-11-18 14:44:39 KST MD5: fe0031a7b29f7cba20ec07f7ce220f30 SHA-256: 15d644c1b677bcb0d67a7e098e5fe09de21b4b4b2 Internal ID: 16788

- 이후 이현수에게 seongmin park이 보낸 이메일로 'seongmin.park11111@gmail.com'이 송신자, 'leehyunsoo8282@gmail.com'이 수신자 주소이며, 박성민이 이현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 절차라는 메시지와 함께 ftp 서버주소와 함께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며 접속 후 다운로드를 유도함.



- 따라서, 이현수가 김재기를 살해하고 받기로 한 댓가는 7천만원의 채무 탕감과 함께 1억원의 보상으로 보인다. 또한, 이현수와 김재기가 이메일, 카톡 등의 수단으로 범행 관련 내용을 공모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범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